

농업의 블루칩...

녹색농자재를 활용한 약용작물 유기재배

이 수 환 약용작물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요즘 국내 농산물 산업에서의 화두는 안전성과 기능성이 결합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재배기술 및 화학농자재를 대체할 소재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식량·원예작물 분야에서는 유기재배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관련기술이 널리 보급되어왔다. 약용작물은 고부가가치 산업소재로서 개발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학연의 연구투자는 미흡한 편이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약재 및 식의약 소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당귀, 황기 등의 약용작물 유기재배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 헤어리베치, 크립손 클로버, 호밀 등 재배적지에 활용도가 높은 녹비작물 선발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진딧물, 응애, 선충 등의 병해충 방제를 위

해 제충국, 계피 등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활용하여 개발된 친환경 식물성제제와 미생물제제를 시험한 결과, 관행재배 못지않은 수량성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지력 향상 효과가 큰 녹비작물과 살충, 살균효과와 가능성이 우수한 유망 식물자원을 친환경 농업 생산분야에 활용하면 토종약초의 청정 이미지가 제고된다.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국산약초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는 우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며, 약초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㉞



▲ 헤어리베치



▲ 제충국



▲ 계피